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67호(2000/6/21)

인 권 은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군 상
사 황
독 이
재 하
시 님
절 니
의 다”

롯데호텔
노조파업
진압장면

사람이야기

하나.

서열의식을 깨자 !!!

범용이(청년모임 '꿈꾸는 사람들' 회원)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서열의식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서열의식은 사회적 위계를 반영하며 사회적 위계는 필연적으로 차별을 동반할 것이기에,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사회적 제도가 아무리 바뀌었다 한들 인간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제도는 언제나 다시 퇴행할 수 있기에, 나는 인권운동이 생활적이고 문화적인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이때 무의식 세계에서의 서열의식은 인권이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1. 경어 사용하기

한국어는 존칭어가 무척이나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으로 존칭받는 사람과 존칭하는 사람의 구분을 낳을 수밖에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는 이러한 관계로 점철되어 있는데, 아이가 어른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존칭어를 사용해야 소통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한국어로 소통을 하려 할 때, 일단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방과 자신의 위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리고 일단 자신보다 위계관계에서 우위를 점한다면 존칭어를 사용하고 하위에 위치한다면 반말을 사용해야만 관계가 정상화되는 경우도 많이 본다.

그런데 의식과 언어는 사람이 구분하기 참으로 힘든 범주이다. 언어가 없는 의식을 과연 누가 상상할 것이며, 의식이 없는 언어 또한 떠올려지지 않는다. 따라서 경어와 반말은 역으로 언어 사용자의 의식을 규정하여 자연스럽게 무의식 세계에서의 서열의식을 만들게 된다. 우리가 흔히 경어를 사용하면 어색해 하는 것은, 그리고 서로서로 반말을 사용해야 친한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서열과 위계에 얼마나 익숙한가를 반영하는 증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경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경어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편안함을 향유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누구에게나 경어를 사용하는 문화를 함께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싶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존칭해 주는 모습까지 상상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2. 이름만 사용하기

한국사회에서 오래된 관습(인습) 중의 하나는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다는 점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왜 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아야 하는지 의문을 가졌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내 주위의 답변은 아버지 성을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하는 정도였던 것 같다. 몇 년 전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부계중심의 관습에 문제제기하는 문화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호주제 철폐 운동의 일환으로 펼쳐지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이다. 즉 아버지 성을 이어받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문화운동으로 어머니 성을 함께 쓰려는 취지이다. 이것에 의하면 나의 이름은 '박박범용'이 된다.

부모성을 함께 쓴 내 이름에 대해 사실 나조차도 웃음이 난다. 조금만 격하게 발음하면 '빽빽'이 되며, 이러면 애초 부모성을 함께 쓰겠다는 의도는 희석된 후 말장난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나의 조건 때문에 나는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의 취지를 이어받으면서 보다 대안적

인 운동형태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 3개월쯤 되었을까? 나는 나를 '범용이'라고 소개하기 시작했으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한 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사람들이 성을 포함한 이름에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범용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러면 성은 무엇이나고 반문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범용이라고 소개하면 나의 이름을 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성을 사용하지 않고 이름만 사용했을 때는 부계중심의 문화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성격은 많이 약해지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성으로 인한 차별을 나조차 뚜렷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사용하는 운동은 바람직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권하기는 시기상조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어느덧 나는 '박범용'이라는 이름보다는 '범용이'라는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3. 첫인사 개발하기

'외국인이 한국인을 처음 만날 때 한국인은 꼭 나이를 묻는 점이 특이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한편 대학생들의 경우에 반드시 학번을 묻고 학번으로 소개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법치화되어 있을 것이다. 나이를 묻고, 학생이면 어느 대학인지 묻고, 대학생이면 학번을 묻고, 형제를 묻고, 고향을 묻고 하는 일련의 호구조사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첫인사일 것이다.

한번은 나이, 학력, 고향 등이 혈연, 학연, 지연 등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사람을 처음 대할 때 나이, 학력, 고향 등을 절대 묻지 않으리라 다짐한 적이 있었다. 이런 다짐 속에서 처음 사람을 대했을 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질문해야 할 지 몰라서 무척이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나의 고민은 나이, 학력, 고향 등을 절대 묻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다. 문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물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곰곰히 생각한 레파토리는 첫째 그 사람의 꿈(인생계획 및 희망), 둘째 꿈을 준비하는 현재 모습(학업 및 직업), 셋째..... 사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 사람이 사는 곳 정도는 편의상 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첫인사의 레파토리를 무궁무진히 개발하는 것은 편안한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 첫 만남을 잘 가져야 하지 않을까?

4. 남녀역할 공유하기

심리학적으로 보았을 때 남녀 성역할이 구분되는 시기는 매우 어려서부터라고 한다. 그것이 유전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일단 사회적 환경이 남녀 성역할 구분을 강화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내가 치마를 입는다면... 사실 나도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어색한 이유에 대해 뾰족히 떠오르는 답은 없다. 나는 생활 곳곳에서 존재하는 남녀 성역할 구분이 남녀의 차별을 무의식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남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었을 때 나는 상호의존적 남녀관계가 아닌 위계적 남녀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누구나 독립했을 때 최소한의 자기생존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러할 때만이 서로서로에게 떳떳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는 남녀역할을 서로서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따라서 남녀구분의 금기를 깨는 모든 행위는 격려되고 고무되어야 한다고 본다. 남성이 가사일을 하는 행위, 여성이 직장을 갖는 행위, 남성이 공존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발달시키는 행위, 여성이 적극적이며 대담하게 행동하는 행위 등등...

그래서 나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최근 가사일에 나름대로 열심이다. 가정에서는 사실 의식주와 관련된 주요한 노동이 행해지고 있는데, 빨래를 하고, 다림질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일련의 일거리들이 산적해 있다. 처음 나는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차츰 익숙해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내가 남자이며 내가 아직 부모님 그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일을 하기에 많은 한계를 느끼기도 한다.

한편 나는 남녀역할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의 지배적 생각은 지배계급의 생각이라고 했듯이, 이 사회에서의 지배적 생각이 어찌면 남성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생각이 보다 긍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생각이 보다 적극적으로 발현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남녀의 문제는 내가 접근하기 두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나는 일단 남녀역할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녀의 서열의식을 무너뜨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무의식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서열의식을 내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사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철저히 검증된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나의 고민을 멈추지 않을 생각이다. 인권은 책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지속적일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사람이야기 두울.

내가 꿈꾸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하는 결심

이종현(청년모임 '꿈꾸는 사람들' 회원)

나는 사실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그래서 묘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묘한 두려움이란 것의 실체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치명적이기도 한데 대부분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문제에 철저히 못만들어서 두려움은 유래한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저번 주 범용형의 발제 중에 첫인사며 호칭, 경어의 문제 같은 것이다. 사실 난 사람들하구 편하게 지내는 편이라 얼렁얼렁 말을 놓던지 높이던지하구 그러는 게 편한데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서열의식과 같은 문제와 만나게 되어버리면 난감해져버리는 것이다. 사실 나에게는 그냥 말놓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럴 뿐인데 다른 의도는 없었던 거지만 실제 나의 의도여부와 무관하게 오히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 사회에 내재된 서열의식을 강하게 하는 과정이란 걸 느껴버리게 되면...아...

이런 비슷한 두려움은 여성운동에 대해 명확한 자기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비슷하게 작동한다. 내가 무심코 하는 말이라던지 행동이 내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무의식과 태도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학습받았으나 태도와 일상적인 행동으로까지 체화되지 않은 결정적인 예가 바로 "나" 되겠다.

그래서 사실 영태형한테 꿈모임에 같이 할래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쟈 처음한 일은 책 두 권을 산일(인권교육 길잡이, 현대사상과 인권)하구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인권을 바라보기 위한 출발"을 전부 굵어다가 프린트한 일이다. - 무려 열아홉 장이나 되더라구요....

이쯤되면 이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가 나름대로 짐작되기도 하고 다분히 귀여운 두려움이며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켜갈 수 없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인권적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길 원하고 그리고 삶을 인권적 가치로 채워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몸에 익히며 나누고 싶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사람들 모임에 참여하는 첫번째 이유이자 결심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문제를 얘기해볼까 한다. 요즘 나는 도무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혹은 학생운동을 접고 나서 느끼는 거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상당히 한정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서인지 모르겠으나 요즘은 판단하는 근거가 흩어지고 내 논리와 생각이 무한루프를 도는 그런 기분에 자주 빠져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혐연권을 보장해야 하면 객연권도 보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웬지 혐연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나라는 근거를 못대겠는 것이다. 저번주 술자리에서 성호님이 지나가는 말로 혐연권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고 객연권은 기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혐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을 좇아 듣고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생각의 틀이 좀 잡히기 시작하는 것이다. 의약분업권도 마찬가지다. 도무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괜히 혼자 합리적인 체 하다가 사태가 수습되고 나서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른다. 얼마전엔 한창 386술판과 장원 씨 얘기가 돌 때 친구와 술을 먹다가 매춘에 대해서 한바탕 논쟁을 벌인 적도 있었는데 어쉴뿐 자유주의식의 논리로 매춘을 정당화하는(물론 그런 의도가 그 친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는 성적 서비스조차 인간과 분리시켜 버릴 수 있다는 다분히 시니컬한 얘기였지만) 난 인간을 떼어놓고 성적 서비스를 사겠다는 게 미친소리라는 얘기만 하다가 한참이 지나고 나니 윤리와 도덕, 정조를 중시하는 사람인 양 되버린 적도 있었다.

나는 나의 판단의 준거와 틀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구체적 필요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 준거와 틀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것은 인권적인 가치라고 감히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좀더 철저해지고 싶다. 첫번째와 별로 분간은 안가겠지만 이것이 내가 꿈모임에 참여하게 된 두번째 이유이면서 결심이다.

직장에 다닌 지가 이제 일년하고도 한 달이 넘었다. 그러다 보니 점차로 신경이 무뎌져가고 사회 이슈는 신문에 나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이래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내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그래서 난 밖으로 나오기로 결심했다. 활동가들과의 만남이나 인권답사(요 말은 쫘 마음에 들지 않지만) 같은 것이 상당히 기대되고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세상과 맞서는 그런 에너지와 생활인 내가 세상과 맞서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싶다. 이것이 세번째 이유이면서 결심이다.

글을 쓰고나니 증언부언했다는 느낌이 많이 나고 이걸로 과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 처음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결심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나니 정말 “불타는 의지”가 생기는 것 같다. 모임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입장에 서로들 있으니 신참의 이런 결심을 기꺼이 받아주시리라 믿고... 토요일날 일찍 나올 수 있는 사람들하고 세미나 같은 걸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한다. 뭘 할지는 떠오르지 않지만 인권선언이나 국제 조약들을 꼼꼼히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글을 마무리하며 제안해본다.

‘사람이야기’는 열린 폐어지입니다.

일상에서 겪은 ‘인권’이야기를 끌어 나누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창조)

사/업/보/고

(2000년 6월 넷째 주부터 2000년 7월 셋째 주까지)

사회권위원회

사회권 규약에 대한 사회단체 보고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집필 분야를 환경권·문화권에까지 넓혀 참여단체가 총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의료연합,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 이뤄진 이번 연대들의 명칭은 「사회권 규약 제2차 반박 보고서 연대회의」로 정해졌고, 내년 4-5월에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한국정부 보고서를 심의하고 견해를 밝힐 때까지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올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실무분과에 보낼 질의서를 각 분야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심의 전 위원회가 보충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는데, 거기에 한국 사회단체들의 주요 관심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정규직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

‘불안정 노동의 시대’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언제 불쑥 해고 통지 혹은 계약해지서가 날아들지 모르는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불안정 노동’이란 고용의 불안에만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임금·노동복지의 혜택·노동자들 간의 유대 등 모든 것들이 불안정해짐을 의미합니다. 점점 늘고 있는

임시직·일용직·파견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노동력의 유연성 제고’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노동자를 인간이 아닌 비용 지출처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권위원회는 이같은 비정규직의 증가가 심각한 인권의 문제라 느끼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의 노동권 확보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색의 일환입니다. KBS, MBC 등에서 오래 동안 파견직으로 일하다 최근 계약해지(사실상의 해고)당한 방송사 노동자들, 청정원으로 잘 알려진 대상식품에서 겨우 일당 16,000원을 받으며 일해온 사내하청노동자들, 하루 종일 물류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중노동을 하고도 노동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랜드 노동자들. 공대위 활동을 통해 접하게 되는 이 들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집회 때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힘에 부쳐 우리 사회권위원회가 많은 일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대위가 주관하는 집회만이라도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이주영 jylee0530@orgio.net]

2주마다 주제별 워크샵 운영

사회권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사회권위원회는 격주 수요일에 주제별 워크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IMF이후 사회권실태보고서」 작업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권에 대한 감을 익힌 자원활동가들이 구

체화된 사업내용을 잡아나가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워크샵이 마련되었습니다. 또 현장 활동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이 시대 사회권 운동의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에는 56차 유엔인권위원회를 모니터하고 팍스로마나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최은아 씨의 강연을 중심으로 '유엔과 경제사회문화적권리'란 주제를 가지고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유엔을 무대로 펼쳐지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이행을 위한 유엔 기구들의 활약 등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7월 28일 오후 7시에는 민중의료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용준 씨와 함께 '건강권'에 대한 워크샵을 가질 계획입니다.

[문의: 최은아]

자유권위원회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신아무개 씨가 안양교도소에 먹방이 존재하고 징벌받기 전 조사위원회에 회부된 수감자들에게 족쇄 등의 불법적인 계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제보해왔습니다. 또한 독거수용자의 경우 종교 집회 등이 불허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신씨는 접견중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때 금치 등의 징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서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양교도소는 인권운동사랑방의 공식질의에 대해 먹방의 존재나 불법 계구사용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심지어 '확인 방문'까지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안양 교도소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5년 마산교도소 교도관들의 불법적인 계구사용과 가혹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부분승소한 김아무개 씨의 첫 부대항소심이 7월 5일 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교도관들이 김씨의 고소권을 제약한 사실만을

문제삼고 고소의 원인인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 항소한 것입니다.

7월초 i-TV 임소영 피디팀은 교도소 가혹행위와 이에 대한 재소자의 대응방안인 '집필권'에 주목해 다큐멘터리(14일 방영)를 제작했습니다.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인 유득형 씨와 윤치고 씨, 마산 교도소 출소자인 김석진 씨 등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또한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민신 씨가 청송제2교도소 수감시절 교도관들의 가혹행위에 저항하며 자해까지 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방영이후 청송제2교도소 출소자인 김상근(33세)씨가 사랑방으로 찾아와 "청송 2교도소에서는 양 씨와 같은 사례가 일반적"이라며 생생한 자신의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문의: 김보영 gamok2@hanmail.net]

아이들의 권리 찾기

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갈 '아이들의 권리찾기'(아리기) 친구들은 지난 7월 15일 마지막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 이후 아리기 친구들은 청소년의 권리 영역 중에서 각자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고 뒤풀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결정된 주제로는 우선 △자치활동(동아리와 학생회), 학칙과 규율, 시설 및 복지 등 학교에서의 청소년 권리 부분과 △청소년 문화 △청소년의 노동권입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의 권리 △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문제 △소년사법 영역 등은 아직 담당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역시 친구들은 청소년들과 학교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듯 다른 주제보다 '학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금 8명의 청소년과 중고등학교학생연합 학생인권팀이 청소년 인권 보고서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친구들의 참여

를 기다립니다.

[문의: 고근예 anti4@chollian.net]

※아이들의 권리 찾기 활동은 온라인에서도 계속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홈페이지가 멋지게 꾸며졌습니다. 야리끼 친구들은 자신의 캐릭터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기성었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방문해서 한 번 확인해 보시길...

http://www.sarangbang.or.kr/youth
e-mail: youth@sarangbang.or.kr

인권정보자료실

2000년 상반기 내내 자료를 속아내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구성한 인권정보자료실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원활동가인 이광길, 백은관, 이대식, 강주호, 이경수 씨가 무더운 여름에도 사무실에 나와 입력작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영태 씨가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프로그램을 짜고 있으며,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에 "(가칭) 온라인 인권정보·자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8월 중순이면 인터넷을 통해 인권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의: 최은아]

연대사업

'통신검열·통제' 반대운동

정부가 이른바 '온라인 공간'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통부는 악칭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는 법안을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

서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충분한 공론과 정도 없이 매우 신속하게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개인정보보호'라는 긍정적 취지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실상은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파악됩니다. 특히 '불법정보'라는 막연한 규정을 통해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가 하면,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상당기간 관련정보를 보관토록 하고 이를 수사기관의 요청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권운동사랑방의 홈페이지에 누군가 '불온한' 정보를 게재할 경우, 사랑방이 이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그럴듯한 외피로 포장되어 있어서 국민들로서도 그 심각성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랑방은 정통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신질서확립법 제정을 저지하고 올바른 통신민주주의의 확립을 위해 다른 사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문의: 이창조 redfrog@jinbo.net]

강신욱 대법관 임용반대 유서사건 진상규명 활동

91년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총괄지휘했던 강신욱 검사가 최근 대법관으로 인준됐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인준을 막기 위해 국회로비와 기자회견,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결국 강신욱 검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후의 활동을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사/랑/방/단/신

■ 서대표, 국보법 투쟁 매진

서준식 대표는 지난 몇 주간 강신욱 검사의 대법관 임명을 저지하고 '유서사건'의 진실을 알려내기 위한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위원들을 차례로 만났고, 7월 8일엔 민주당 서영훈 대표를 만나 강신욱 인준반대를 당론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겨레신문의 '논단'과 한겨레21 '왜도난담'에 관련 글을 기고했습니다.

서 대표는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칭) 결성작업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와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로 나뉘었던 운동진영이 이번에 단일한 연대기구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 하루소식의 새얼굴들

인권하루소식을 보고있는 분들은 요즘 하루소식에 새로운 기자 이름이 부쩍 늘었다는 사실을 이미 발견하셨겠지요? "누굴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하루소식을 전담하고 있는 상임활동가는 류은숙 씨(편집장) 1명입니다. 그리고 각 사업책임자들이 자신의 활동분야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있고, 거기에 자원활동가들이 대거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심태섭 씨가 6월부터 하루소식 기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활동했던 기명돈 씨도 최근 하루소식 기자로 결합했습니다.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이광길 씨도 낮 동안은 하루소식 취재로, 밤에는 생업으로 연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하루소식 2대 편집장을 지냈던 심보선 씨가 최

근 하루소식 기자로 컴백해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가지 특징이라면 새로운 멤버들이 모두 남자들이라는 점입니다. 혹자는 6월부터 편집장을 맡게된 류은숙 씨가 상당한 기(氣)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루소식은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기자들의 활약 속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 사무국, 8월 MT

상임활동가들은 오는 8월 13-15일 2박3일간 강원도로 MT를 떠납니다. 휴가 기간이라 장소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 MT에서는 사랑방의 장기적인 조직구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새로이 업무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참공익이 등지를 틀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모임인 '참공익'이 사랑방에 등지를 틀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한 분이 일주일에 세 차례 사랑방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으며, 사랑방은 '참공익'의 활동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 김정희씨 매항리투쟁 도중 연행

상임활동가 김정희 씨가 지난 16일 매항리사격장 앞에서 진행된 햇불시위 도중 경찰에 연행되었다가 불구속 입건된 뒤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주민대책위원장과 김종일(자통협 사무처장), 김용한(소과국민행동집행위원장) 씨를 구속했습니다.

청소년 인권캠프 신청접수

8월 8일-10일 열리는 청소년 인권캠프의 참가신청이 아직 마감되지 않았습다. 주위의 청소년(만 18세 미만)들에게 참가를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보고 ■

<롯데호텔노조와 사회보험노조 파업장에서의 경찰력 투입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지난 6월 29일과 7월 1일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장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행위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사랑방은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00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총 1,800부(롯데 1천부, 사회보험 8백부)중 1,365부(회수율 75.8%)가 회수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경찰의 폭력 진압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했으며, 조합원들은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임신부와 장애인에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등 조직폭력배나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진압당시 본인이 당한 경찰폭력(복수응답)으로는 △최루탄, 연막탄, 섬광탄, 분무 소화기를 마구 쏘아댐 (롯데 89.8%, 사23.2%) △곤봉과 쇠파이프, 방패 등으로 마구 때림 (롯데 70.7%, 사 44.5%) △욕설을 퍼부으며 오리걸음 등의 기합을 줌 (롯데 70.0%, 사 70.7%) △군화발로 마구 짓밟음 (롯데 62.7%, 사 27.7%) △손을 머리에 얹고 땅바닥에 머리를 박게 함(롯데 60.7%, 사 71.0%)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시 △경찰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응답한 경우는 롯데 87명(12.0%), 사 69명(10.8%)였으며 △임산부·장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경우도 롯데 155명(21.3%), 사 29명(4.5%)이나 됐습니다.

술개부대 등 진압에 동원된 경찰들은 "이것들, 사람 새끼들도 아니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 "눈깔에 먹물을 빼 놓겠다"는 등 상스러운 욕과 폭력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또 여성을 상대로 "개년들아,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임산부가 있다고 하자) 오줌이나 싸 버릴 까보다" 등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도 내뱉었습니다.

연행과정에서 사회보험노조원 298명(62.7%)은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 등으로 차량주변 여가져기서 구타를 당했으며, 경찰은 차량 안에서도 갖은 욕설과 함께 사회보험 노동자들에게 손을 깎지킨 채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맨손과 워커, 곤봉 등을 이용해 집단구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시에도 경찰관들은 노동자들에게 반말을 예사로 구사하고 간간히 머리를 쥐어박았으며, 또한 조합원들이 조사과정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응답하지 않을 경우 "다시 불러서 수사하겠다",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모든 경찰서에서 훈방이나 불구속 입건시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일정한 양식에 따라 조합원들이 서명만 하면 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각서를 받았습니다. 각서의 내용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겠다",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등 조합원들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은 그후 "기슴이 벌렁벌렁 똬다", "경찰만 봐도 겁이 난다", "(경찰에 쫓기는) 악몽을 꾸다"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자들을 고발하고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구체적인 인권유린 실태들을 알려낼 것입니다. [문의: 김보영]

2000년 6월 회계 보고

(2000년 6월 16일 - 7월 15일)

이월금 : 1,137,255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3,023,010원	사업비 385,220원
-하루소식 2,950,710원	-하루소식 157,550원
구독료(151명) 2,581,820	-자료구입·제본 20,980원
기사배급 312,190	-자유권위원회 24,000원
인권시평 배급 56,700	-사회권위원회 87,020원
-간행물 및 자료판매 68,900원	-인권교육실 4,570원
인권교육길잡이 2권	-롯데사태 설문조사 54,000원
인간답게 살권리 2권	-후원회원 소식지 37,100원
아시아의 인권교육 1권	활동비 3,560,000원
현대사상과인권 1권	사무실유지비 913,720원
아이들의 인권 1권	통신비 1,067,859원
국가보안법 보고서 1권	-전화, 팩스 772,079
-자료복사비 3,400원	-통신, 인터넷 295,780
후원금 2,440,420원	사무비품 272,800원
-정기회비 2,240,420	컴퓨터부품 구입 675,000원
-특별후원금 200,000	사무국식비 289,770원
활동가 기여금 1,150,000원	생활비 158,970원
기타 18,063원	기타 100,890원
-은행이자 15,063	-정기간행물 구독료 30,000
-기타 3,000	-베트남문화제 후원 50,000
	-기타 20,890
총수입: 6,631,493원	총지출: 7,424,229원
잔액:	344,519원
현 부채:	3,606,500원

후원회비 납부계좌



특별사업기금 사용내역

적립액 :	5,660,000
지출내역	
- '아이들의 권리찾기'(유엔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이행 민간단체보고서 작업)	340,590
- 강신옥 대법관 임용 반대 및 '유서사건' 진상규명 활동	338,600
총지출 :	679,190
잔액 :	4,980,810

이 기금은 불심검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대학생들의 승소금으로 마련된 것이며
사랑방이 진행하는 특별사업비용으로만 사용됩니다.

<2000년 6월 재정 세부사항>

- 이번 달부터 수입 내역에 '활동가 기여금'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상임활동가들이
각자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수익을 사무국 재정에 보탠 부분입니다.
- 임석현, 박선옥 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 인권하루소식을 인터넷 뉴스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 게재하면서
기사제공료를 받고 있습니다.
- 불법연행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옛 중앙대생이 컴퓨터 2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기증받은 컴퓨터에 부품을 추가하는 비용이 별도로 지출됐습니다.

<6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가나다순)

